

# 2026학년도 시선국어모의고사

## 문학 - 북새곡 작품 적중

### - IN 2026학년도 시선국어모의고사 3회차

버선 행전(行纏)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못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여(藍興)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을 드리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또 물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 땀시 더욱 좋다 질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일 때는 범일러니 보니까 미역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의를 갖춘 후에 죄수 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향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데  
 큰칼 썩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더라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구강, 「북새곡」-

### - IN 2026학년도 수능 국어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라  
 여러 날 칩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쾌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라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끝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구강, 「북새곡」-

# 2026학년도 시선국어모의고사

## 문학 - 수궁가 작품 적중

- IN 2026학년도 시선국어모의고사 3회차

[진양]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니가 세상을 간다허니 무엇허러 가라느냐. 삼대독자 니 아니냐 장탄식 병이 든들 뉘 알뜰히 구원허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 휘여허 날려줄 이가 뉘 있더란 말이나.

[A]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마라.** 세상이라 하는 데는 수중인간이 얼른 허면 잡기로만 위주를 한다. 옛날에 너의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십 리 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단다. 못가느니라 못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니가 세상을 가지마는 살려두고는 못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입(危邦不入)\*이니 가지를 마라.

[아니리]

별주부 여짜오되 “나라에 환후(患候)가 계옵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 무슨 풍파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마는 니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니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를 하였고나. 니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도 만 리를 ㉡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 작자 미상, 「수궁가」 -

- IN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왼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보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꼭 물었던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랴다 후다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단듯 조총에서 철환 단듯 오름에서 조조 단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냇다 떠 뉘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가 뽀쪼롬허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것다 예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 **세수람 고개**에다 덜렁 올라앉어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렷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 2026학년도 시선국어모의고사

## 독서 - 인바와 열팽창 소재 적중

- IN 2026학년도 시선국어모의고사 3회차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밀 시계의 추, 위성 망원경 지지대, 극저온 LNG 탱크 등은 인바라고 불리는 철, 니켈 합금을 사용한다.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왔듯, 인바는 주위 온도가 달라져도 길이나 부피가 거의 바뀌지 않아 불변강으로 통한다.

대부분의 금속에서는 열이 가해지면 원자들이 격자 안에서 진동하는 폭이 커진다. 진동의 중심이 미세하게 벌어지면 원자 사이 평균 거리가 넓어지고, 이 거리의 증가는 곧 길이와 부피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전자 결합이 강한 물체는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며, 정육면체와 같이 대칭 형태의 금속은 방향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늘어난다. 해당 팽창의 정도는 0℃부터 수백℃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인바는 철 64%, 니켈 36%로 구성된다. 두 금속 원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격자 하나를 공유하며, 상온에서 원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유지되어 자기적 성질을 띤다. 격자 안 각 원자는 돌림힘을 지닌 고자성 상태와, 순간적으로 돌림힘이 줄어든 저자성 상태를 오갈 수 있는데, 일반 금속에서는 온도가 오르면 열진동이 원자 사이 거리를 넓혀 팽창이 일어나지만, 인바에서는 자성이 약화되는 것이 오히려 격자를 수축시켜 열팽창을 상쇄한다.

- IN 2026학년도 수능 국어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